

Online Series

2023. 08. 11. | CO 23-21

‘디커플링’: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담론에 불과한 것인가?

이 용 재(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부연구위원)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양국 간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몇 주간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등 여러 중국 지도자를 만나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으로 표현하곤 한다.

본고는 디커플링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디커플링의 의미가 무엇이고,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디커플링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인지, 그리고 미중 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할 것이다.

2023년 6월 18일 미 국무장관 앤소니 블링컨(Antony Blinken)의 중국 방문 후 최근 몇 주 동안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과 기후변화 특사 존 케리(John Kerry) 등 여러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심각하게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경쟁이 양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2018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양국 간 경쟁이 교역을 넘어 첨단기술과 공급망으로 확대되면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이다.

본고는 디커플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 개념이 현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디커플링’이란?

디커플링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활동이 분리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디커플링은 주로 금융시장에서 사용되어 오던 개념으로, 한쪽의 경제 현상이 다른 한쪽의 경제 현상과 예상되는 정상적인 상관관계에서 벗어날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경제 현상 간의 관계가 기존과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가는 석유회사의 주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둘은 비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회사의 주가도 상승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이들의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원유 증산으로 유가가 하락하지만, 석유회사의 주가는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 석유회사의 주가가 유가로부터 ‘디커플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가는 비례 관계를 보인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미국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상황에 따라 동반 상승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식이 상승할 때 어느 한 기업의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를 디커플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려면 경제 주체 간 관계 단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디커플링은 ‘경제적인 단절’ 내지는 ‘상관관계 최소화’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디커플링은 경제 주체 간 상호의존의 최소화로 인하여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부상하는 개도국이 성장하는 자국과 개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미국과 선진국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현상도 디커플링으로 볼 수 있다.

디커플링은 정도에 따라 절대적, 상대적 디커플링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디커플링(absolute decoupling)은 경제 요소나 주체 간의 상관관계를 ‘제로(0)’로 만드는 단절을 의미하고, 상대적 디커플링(relative decoupling)은 상관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커플링이 미중 공급망 경쟁에 적절한 표현인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목적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이 무기화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기존의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 보호 및 나아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5G, AI,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줄이고 동맹과 우방국으로 공급망 다변화(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혹은 동맹 쇼어링(Ally-shoring)) 및 리쇼어링(국내 회귀: Reshoring)을 통한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디커플링은 양국 간 전체 교역과 투자가 아니라 일부 핵심 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미중 무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출처: IMF, “The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Accessed July 27, 2023)를 참고하여 정리함.

<그림 1>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미중 무역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상 최대인 7,6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에 비해 2022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4.53%, 수입은 21.18% 증가하였다. 2022년 미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8.57%를 기록했고, 대중국 수입도 미국 전체 수입에서 18.19%를 차지했다.²⁾ 이렇듯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허브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디커플링을 일부에서는 ‘기술 디커플링(technology decoupling)’, ‘부분적 디커플링(partial decoupling)’, 혹은 ‘제한적 디커플링(limited decoupling)’ 등으

1) 일각에서는 미국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자체 기술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2) IMF, “The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Accessed July 27, 2023)를 참고함.

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런 축소된 의미의 디커플링이 미중 공급망 경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분적 디커플링, 제한된 디커플링, 기술 디커플링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차단’ 혹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첨단기술 및 핵심 산업에서 이러한 ‘단절’이나 ‘차단’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각종 법안을 제정하여 중국에 집중된 자국, 동맹국 및 우방국의 핵심 산업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나 미국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였다. 또한 핵심 반도체 제조설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였고, 행정 명령을 발효하여 특정 중국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막았지만, 양국 간의 첨단기술, 핵심 산업에서의 상관관계가 ‘제로(0)’로 수렴하지는 않고 있다.

<표 1> 중국의 대미 전자집적회로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수출량	961.95	1125.84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 <<http://stats.customs.gov.cn/>> (Accessed August 5, 2023)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1>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국 전자집적회로 수출은 2022년 상반기 9억 6,100만 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11억 2,500만 달러로 14.55% 증가하여, 미국의 대중국 전자집적회로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군민양용 기술 분야인 AI에서 미중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조지타운 대학교 ‘안보 & 신흥기술 센터(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Georgetown Universit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167개 투자자가 401개 중국 AI 기업 투자거래에 참여하였고, 이는 전 세계의 중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의 17%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이 251개 중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 총액은 400.2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 AI 기업이 조달한 투자 총액의 37%에 달한다.³⁾ 그래서 미중 공급망 경쟁을 디커플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Emily S. Weinstein and Ngor Luong, “U.S. Outbound Investment into Chinese AI Companies,”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Georgetown University, February, 2023,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u-s-outbound-investment-into-chinese-ai-companies/>> (Accessed July 20, 2023).

디커플링이 가능한가?

미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획득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디커플링 달성 가능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측 인사들도 미중 공급망 경쟁을 ‘디커플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오히려 미중 경쟁이 디커플링으로 치닫는 상황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2023년 5월 G7(Group of Seven) 회의에서 미국은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 줄이고 다변화를 추구하지만,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⁴⁾ 6월 앤소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⁵⁾ 4월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은 디-리스크(위험 경감: de-risking)과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⁶⁾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미중이 디커플링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재앙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⁷⁾ 미국 측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을 봤을 때 양국 사이 디커플링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발효한 법안과 행정 명령에도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럿 있다. 2022년 8월에 발효된 「2022년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투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 및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북한, 러시아, 이란 포함)과 같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 국가의 반도체 제조 능력의 실질적 발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⁸⁾ 위반

4) Jihye Lee, “‘We are not decoupling’: G-7 leaders agree on approach to ‘de-risk’ from China,” CNBC, May 21, 2023, <<https://www.cnbc.com/2023/05/22/g-7-leaders-de-risk-china.html>> (Accessed July 21, 2023).

5) Nike Ching, “Blinken: US Seeks to Coexist Peacefully With China,” Voice of America, June 28, 2023, <<https://www.voanews.com/a/blinken-us-seeks-to-coexist-peacefully-with-china-/7159127.html>> (Accessed July 21, 2023).

6) “Reactions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Brookings speech,” Brookings Institute, May 2, 2023, <<https://www.brookings.edu/articles/reactions-to-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s-brookings-speech/>> (Accessed July 21, 2023).

7)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at Press Conference in Beij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ly 8,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603>> (Accessed July 22, 2023).

8) 세계법제정보센터,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번역본,” 2023.4.5., <https://world.moleg.go.kr/web/wi/lgsInfoReadPage.do?A=A&CTS_SEQ=50181&AST_SEQ=313> (검색일: 2023.8.6.).

시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그 외에도 미국 안보 기관의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환수(보조금의 최대 75%), 상세한 회계자료(재무, 영업, 회계) 제출 등의 독소 조항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독소 조항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외국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중국에서의 생산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독소 조항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탈중국을 위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최첨단 고사양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 및 중국에 투자 중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도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과 제3국 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전면적인 단절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미국은 고성능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일부 고사양 반도체에만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하였고, 중국기업이나 중국에 투자 중인 외국 반도체 제조 기업에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 제조 장비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였다. 반도체 제조 설비 수출 통제도 중국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인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에 수출통제 1년 유예를 허용하였고, 앨런 에스테베스(Alan Estevez)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한국과 타이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유예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⁹⁾

현재 미국의 실질적인 대중국 제재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가 현대 첨단산업의 근간인 만큼 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AI, 고성능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를 이들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여러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단절을 야기하는 실질적인 디커플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중 견제 분야인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소비량은 1,855억 달러로 2021년의 1,884억 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Intel Corporation)은 중국에서 200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 세계적인 무선통신 및 반도체 기업인 퀄컴(Qualcomm Technologies, Inc.)은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 내 매출의 4배 이상인 115억 달러를 기록했다.¹⁰⁾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자국과 우방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⁹⁾ Yuka Hayashi, "U.S. to Allow South Korean, Taiwan Chip Makers to Keep Operations in China Analysts say the move will weaken export-control measures aimed at curbing Beijing,"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12, 2023, <<https://www.wsj.com/articles/u-s-to-allow-south-korean-taiwan-chip-makers-to-keep-operations-in-china-5d7d72cc>> (Accessed August 6, 2023).

〈표 2〉 주요 전자집적회로 생산 국가의 대중국 전자집적회로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22년 6월	2023년 6월	증감률
미국	1026.63	645.19	-37.15%
한국	7313.29	6056.95	-17.17%
일본	1571.97	1664.61	+ 5.89%
타이완	12742.15	11458.33	-10.07%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海关统计数据在线查询平台”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2〉를 보면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의 대중국 전자집적회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국은 2022년 6월에 비해 2023년 6월에 대중국 수출량이 약 37% 감소하였다. 한국과 타이완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량이 각각 약 17%와 10% 감소하였지만, 일본은 오히려 약 6%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전자집적회로 수출량 감소율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2~3배 이상 큰 걸로 나타난다. 이렇듯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과도하게 탈중국 전략을 편다면, 거대한 중국 반도체 시장을 다른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보복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¹¹⁾ 실제로 2023년 5월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제재안으로 마이크론사 제품은 중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의회에서는 제재 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대체할 것을 우려하였다. 2023년 7월 초 중국 상무부는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방중에 앞서 반도체, 충전기, 태양광 패널, 무선통신기기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총 30여 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발표하였다.¹²⁾ 유럽의 중요원료 관련 산업의 대표기관인 ‘중요 원료 연합(The Critical Raw Materials Alliance)’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의 약 80%, 게르마늄 생산의 약 60%를 담당하여¹³⁾ 중국의 수출통제는 미국이나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미국 우방국

10) Robert Lewis, “Decoupling from China rejected by Biden team: According to Tony Blinken, decoupling is ‘unrealistic’ and ‘counterproductive’; it also wouldn’t work,” *Asia Times*, December 8, 2020, <<https://asiatimes.com/2020/12/decoupling-from-china-rejected-by-biden-team/>> (Accessed August 9, 2023)

11) Thomas Alsop, “Semiconductor sales worldwide 2015–2022, by region,” Statista, March 1,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49509/forecast-of-semiconductor-revenue-in-the-americas-since-2006/>> (Accessed July 19, 2023).

12)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 海關總署公告2023年第23號 關於對鎢、鉻相關物項實施出口管制的公告,” July 3, 2023, <<http://big5.mofcom.gov.cn/gate/big5/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07/20230703419666.shtml>> (Accessed July 18, 2023).

13) “Germanium,” The Critical Raw Materials Alliance, <<https://www.crmalliance.eu/germanium>> (Accessed July 18, 2023); “Gallium,” The Critical Raw Materials Alliance, <<https://www.crmalliance.eu/gallium>> (Accessed July 18, 2023).

기업들의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배터리 핵심부품(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을 북미에서 50% 이상 생산하거나,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채굴·가공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3,750달러씩 총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은 배터리 생산의 4개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가공에서 60~90%의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보복으로 가공된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다면 제재 대상이 되는 미국 혹은 미국발 제재 동참국들은 배터리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미중 양국의 경제 및 기술 의존도가 크고, 제3국들의 이익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디커플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옳다.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디커플링은 냉전 시대 동서 진영이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거의 교류가 없는 시대이나 가능한 현상이다. 냉전 후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장기적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실질적인 디커플링은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지만,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은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대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 한국도 그동안 고수하였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더 이상 미중 관계에서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 되어 버렸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한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달려있다. 미국이 발효한 「2022년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동맹국과 우방국의 이익은 무시되고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일부 조항을 유예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익을 보호하도록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